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0년 **4**월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4월

---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	5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35
제 3 장	2000/2001년 경제전망 .....	41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55

---

## 부록

경제정책정보 .....	75
주요경제통계 .....	80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 수 희  
권 영 민  
남 광 희  
박 승 록  
이 인 실  
황 인 학  
김 주 호  
김 창 배

선임연구위원

<가나다순>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산업생산/고용/소비/투자/경기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국제수지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부동산가격/명목임금
4. 통화·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금리/환율 및 외환보유고

---

##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미국/일본/EU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

## 제3장 2000/2001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 금리/환율

---

##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거시경제
2. 금융개혁
3.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과제

## 제 1 장

## 국내경제동향

## 1. 실물부문

경제성장: 99년성장률 10.7%
--------------------

- 99년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빠른 회복과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10.7%증가.
-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경기상승에 따른 소비심리가 준내구재와 서비스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0.3% 증가.
- 정부소비는 인력감축 및 경상경비예산의 긴축운용으로 전년대비 0.6%감소.
- 설비투자(38.0%)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물건설투자의 부진이 연중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둔화되면서 고정투자는 전년대비 4.1%증가에 그침.
- 수출은 중화학제품 수출호조와 경공업제품 수출회복으로 16.3%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28.9% 증가.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5.0	-6.7	5.4	10.8	12.8	13.0	10.7
민간소비	3.5	-11.4	6.7	10.3	12.1	12.1	10.3
정부소비	1.5	-0.4	-2.0	-1.7	0.1	0.8	-0.6
건설투자	2.3	-10.1	-13.6	-8.5	-9.8	-10.2	-10.3
설비투자	-8.7	-38.8	13.0	37.3	48.5	55.1	38.0
총수출	21.4	13.2	9.2	14.6	20.0	21.0	16.3
총수입	3.2	-22.4	27.3	28.3	32.3	28.0	28.9

자료: 한국은행

**생산 : 높은 증가세 지속 그러나 상승속도 소폭 둔화**

- 생산, 출하 등 생산활동은 내수신장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금년 들어서도 활기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음향통신기기, 사무회계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1월과 2월 각 전년동월대비 28.0%, 25.4%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호조를 지속.
- 그러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지난해 4/4분기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승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재고는 1월과 2월중 각각 전년동월비 5.9%, 8.6%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
- 그러나 출하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월비 재고증가율은 하향추세를 보임.
- 평균가동률은 99년 11월 이후의 일시적인 가동률 상승요인이 해소되면서 2월중에는 다시 80%아래로 하락.
- 11월중에는 선박의 건조량 증가, 주류 등 일부품목의 연말 특수, 12월중에는 2000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는 에어컨의 생산증가, 자동차 신차 생산 그리고 금년 1월중에는 반도체, 음향통신기기 등에서 재고확보를 위한 생산증가 등이 일시적인 가동률 상승요인으로 작용.

<표 2>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생 산	4.7	-6.5	14.1	24.6	28.5	28.9	24.2	28.0	25.4
· 중 화 학	8.3	-3.8	18.5	30.1	34.6	33.1	29.3	32.8	29.1
· 경 공 업	-5.9	-15.6	0.5	9.5	12.2	16.3	9.6	12.8	11.4
출 하	6.3	-8.6	14.6	25.1	28.8	31.0	25.1	29.9	28.3
· 내 수	1.3	-22.8	9.5	21.4	27.4	26.1	21.1	25.1	27.2
· 수 출	19.9	24.1	22.2	30.5	30.7	37.7	30.6	36.6	29.5
재 고	4.6	-17.0	-17.7	-15.6	-8.4	2.1	2.1	5.9	8.6
계절조정전기비	4.6	-17.0	-5.8	-0.3	3.0	5.3	2.1	2.3	-0.1
평균가동률(%)	79.2	68.0	70.8	76.0	79.6	79.8	76.6	80.5	78.9

주 : 재고는 기말기준  
 자료: 통계청

**고용:개선추세 지속**

- 지난 해 2/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확대되고 계절조정 실업률도 하향추세를 지속하는 등 고용사정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표 3> 고용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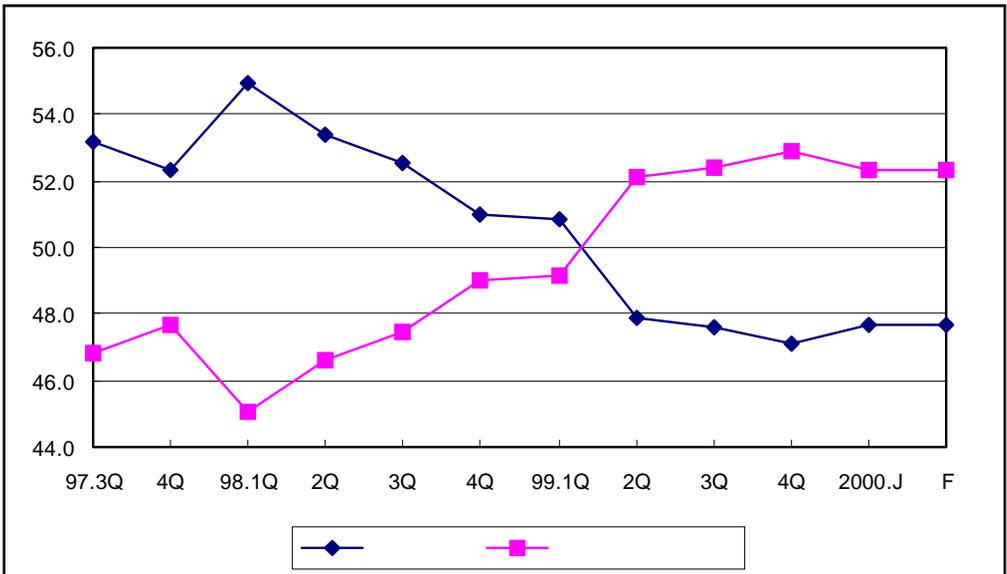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경제활동참가율(%)	62.2	60.7	58.6	61.0	61.2	61.2	60.5	59.1	59.1
취업자(천명)	21,106	19,994	19,105	20,362	20,695	20,962	20,281	20,131	20,149
취업자증가율 <sup>1)</sup>	1.4	-5.3	-3.3	0.6	3.2	5.2	1.4	6.1	6.9
농림어업	-1.8	4.0	-12.1	-7.5	-3.8	1.8	-5.3	1.3	3.9
제조업	-4.5	-13.0	-6.6	1.7	7.1	9.6	2.8	10.0	10.5
건설업	1.7	-21.3	-24.0	-8.7	2.0	7.0	-6.5	9.2	10.8
실업자(천명)	556	1,461	1,748	1,435	1,220	1,011	1,353	1,127	1,121
실업률(%)	2.6	6.8	8.4	6.6	5.6	4.6	6.3	5.3	5.3
계절조정실업률	2.6	6.8	7.6	6.7	5.9	4.9	6.3	4.6	4.4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진정되면서 고용구조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
- 지난해 4/4분기중 47.1% : 52.9%였던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이 금년 1~2월중에는 47.7% : 52.3%로 나타남.

<그림 1>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추이



**소비: 높은 증가세 소폭 둔화**

- 경기확장국면의 지속으로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도소매판매액은 신차출시에 따른 자동차판매증가, 컴퓨터 판매 신장 및 대형할인점 등의 판매호조로 1월과 2월 각각 16.6%, 13.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내수용소비재출하는 자동차,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소비재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비내구소비재 증가율이 낮아져 증가율이 다소 둔화.

<표 4>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도소매판매	3.2	-12.7	6.9	11.6	17.6	15.7	13.0	16.6	13.3
· 도 매	3.2	-8.3	3.9	10.2	15.9	13.3	11.4	16.5	11.6
· 소 매	4.5	-11.1	3.9	8.1	13.3	13.9	9.8	14.0	11.7
· 자동차·연료	-0.7	-34.3	30.3	23.6	41.5	35.9	33.0	26.5	29.0
내수용소비재출하	-1.6	-21.0	14.7	18.5	26.0	24.6	21.1	21.0	19.4
· 내 구 재	4.5	-27.4	42.8	34.4	63.9	50.3	48.0	45.0	43.5
· 비내구재	-4.2	-17.9	4.1	11.5	10.3	12.8	9.6	10.6	7.3

자료: 통계청

**투자: 설비투자 호조, 건설투자 부진 지속**

- 금년 들어서도 설비투자추계 등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의 높은 증가세 지속.
- 1~2월중 기계류내수출하와 기계류수입액이 70%전후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도 산업용기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60%이상 증가.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의 발주증가로 약 20% 증가.

<표 5>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내기계수주	3.3	-30.5	16.7	38.7	22.6	13.8	22.6	17.8	19.8
· 공 공	-2.5	-45.1	4.4	78.5	-0.4	-5.6	14.2	27.6	-11.7
· 민 간	4.6	-27.3	18.5	33.4	27.1	17.5	24.0	17.1	22.9
기계류수입액	-22.8	-52.9	8.0	20.3	45.4	62.0	33.5	56.7	81.0
설비투자추계	-6.4	-37.7	12.0	48.1	54.2	61.9	43.5	57.1	66.0
설비용기계내수출하	1.2	-37.7	1.6	36.1	45.6	46.8	32.3	56.7	74.5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 지난 해 9월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감소세 지속의 영향으로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1월과 2월중 감소세 지속.
- 반면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상승세를 지속.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발주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발주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됨. 건축허가면적도 농업용을 비롯한 상업용 및 주거용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여 높은 증가세 지속.

<표 6>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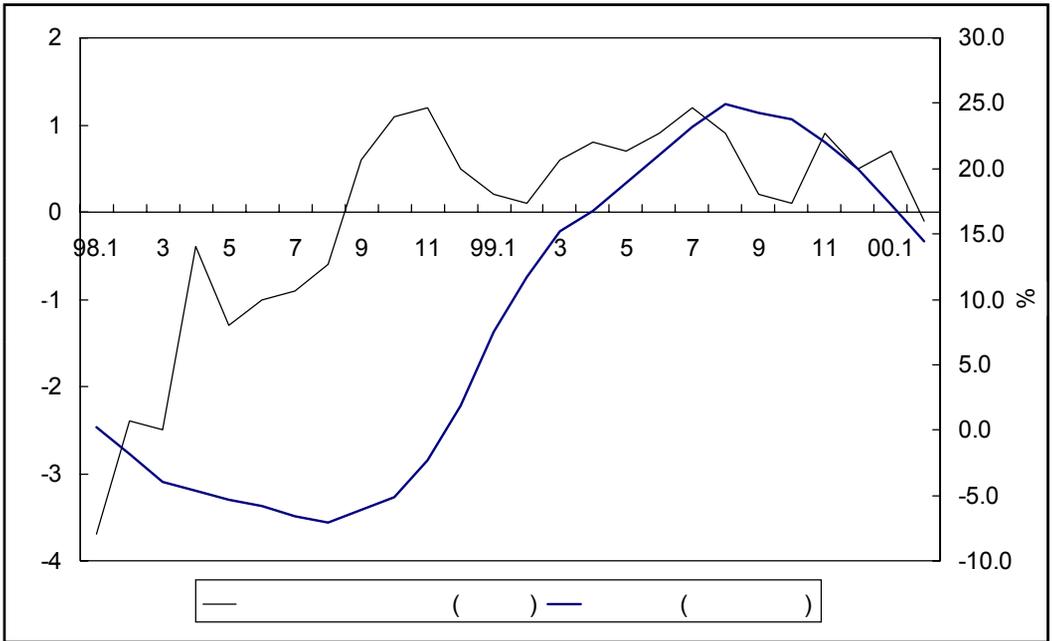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내건설수주	5.4	-42.6	-45.3	27.1	13.4	18.0	0.8	105.3	74.3
· 공공	7.6	-21.4	-53.8	-12.6	-35.0	-21.9	-30.9	10.7	-7.1
· 민간	-5.9	-57.6	-30.7	65.7	93.5	117.7	51.7	197.6	130.1
건설기성	-	-	-1.0	3.8	3.7	-1.8	1.2	-3.5	-12.9
건축허가면적	-0.4	-55.0	-45.8	22.4	76.6	173.4	42.3	89.4	67.1
· 농업용	-26.2	-68.2	24.2	177.0	242.6	288.4	179.8	403.9	201.1

자료: 통계청

**경기: 급속한 경기상승국면을 지나 안정적인 확장단계**

-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가 98년 8월을 저점으로 급속한 경기상승국면을 지속함.
- 99년 9월부터 경기종합지수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며 안정적 확장국면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 최근 경기종합지수의 추이



##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급증으로 흑자규모 축소**

-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과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1/4분기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약 40억달러 축소된 7.5억달러에 그침.

<표 7> 수출입(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연간	1월	2월	3월	1/4
수출입차(통관)	-84.5	390.3	46.9	239.3	-4.1	7.7	3.8	7.5
수출(통관)	1,361.6	1,323.1	302.5	1,436.9	121.8	127.9	146.0	395.7
증가율	5.0	-2.8	-6.1	8.6	31.5	37.0	25.3	30.8
수입(통관)	1,446.2	932.8	255.7	1,197.5	125.9	120.2	142.2	388.2
증가율	-3.8	-35.5	8.1	28.4	45.9	57.4	52.8	51.9

자료: 산업자원부

- 수출은 지난 해의 높은 신장세가 이어지면서 1/4분기중 30.8%증가.
- 이처럼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이유는 선진국의 수요증가와 개도국의 경기회복 그리고 주요품목의 단가상승 그리고 엔화의 기조적 강세 등으로 주력수출품목들의 수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기 때문.
-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 대부분의 주종수출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컴퓨터 수출은 일본과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 증가로 10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해 4/4분기 감소세로 반전했던 자동차 수출도 미국, EU등 선진국수출증가와 중남미지역 수출회복으로 50%이상의 증가세를 보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품 목 명	1999					2000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1~20
○ 중화학제품	0.9	5.1	23.1	29.3	14.8	42.7	47.0	18.7
- 반도체	13.4	12.3	13.4	5.4	10.8	17.2	17.2	13.6
- 자동차	3.1	16.0	39.2	-1.7	12.3	45.3	72.2	51.6
- 철강제품	-23.6	-24.6	-7.7	6.7	-13.4	26.2	27.4	-1.8
- 석유화학	-12.4	-11.3	18.9	30.1	5.6	46.9	53.3	41.2
- 일반기계	0.3	-4.1	9.6	10.3	4.0	28.8	27.7	36.8
- 컴퓨터	18.3	64.8	114.8	203.6	103.1	154.7	128.7	77.5
- 가정용전자	-4.3	12.1	28.0	67.0	22.5	55.4	49.4	15.5
- 선박	2.4	-22.4	-14.8	9.0	-6.5	53.4	116.7	-58.6
○ 경공업제품	-7.5	0.0	5.7	20.0	4.4	17.1	19.8	12.2
- 섬유직물	14.0	-2.0	5.7	28.2	3.7	20.1	21.9	15.9
- 섬유제품	9.7	1.4	3.9	14.0	6.8	10.5	14.0	2.5
- 플라스틱	1.1	10.7	14.9	24.6	12.9	25.1	25.1	15.0
- 타이어	-1.6	-7.1	-6.4	1.1	-3.7	-0.3	7.7	-2.4

자료: 산업자원부

- 1/4분기중 수입은 51.8%가 증가해 지난 해 하반기(41.9%)보다 상승폭이 커짐.
- 이와같은 수입급증세는 국내경기호조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및 기타 원자재가격이 세계경기호조로 본격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
- 용도별로는 경기호조세 지속 및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재도 내수경기회복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표 9> 용도별 수입

단위 :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12월	연간	1월	2월	3.1~20
원 자 재	-34.7	42.0	21.2	47.3	58.2	57.1
자 본 재	-36.8	53.7	39.3	45.4	59.3	45.7
소 비 재	-41.1	31.7	27.5	38.9	45.2	26.9

자료: 산업자원부

**국제수지: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자본수지 흑자 확대**

- 경상수지의 흑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흑자규모는 축소.
- 99년중 250.0억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나 98년(405.6억달러)보다는 흑자규모가 155.6억 달러 축소.
- 1~2월중 11.1억달러의 흑자를 보여 흑자규모가 지난 해 동기간(각각 39.3억달러)보다 28.2억달러 축소.
-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 및 금융기관의 후순위채 발행, 외화차입 해외DR발행 등의 영향으로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확대.
- 99년중 자본수지는 IMF차입금 조기상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자금 유입 등으로 5.8억달러 흑자를 보임.
- 1~2월중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자금 유입이 지속된데다 국내은행의 외화후순위채 발행,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관련신용 도입의 증가로 51.8억달러 흑자.

<표 10> 국제수지

단위 : 억달러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2월	연간	1월	2월	1~2월
경상수지	-81.7	405.6	39.3	250.0	3.2	7.9	11.1
상품수지	-31.8	416.3	39.6	287.2	6.3	7.2	13.5
서비스수지	-32.0	6.3	0.2	-10.1	-3.2	-0.9	-4.2
소득수지	-24.5	-50.5	-4.3	-46.6	-0.9	0.4	-0.5
경상이전수지	6.7	33.5	3.9	19.5	1.1	1.2	2.3
자본수지	13.1	-32.5	6.7	5.8	30.0	21.8	51.8

자료: 한국은행

### 3. 물가부문

####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 경기상승과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금년 들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보다 소폭 상승.

<표 11>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말비
							1/4	1월	2월	3월	3월
소비자물가	7.5	0.7	0.6	0.7	1.3	0.8	1.5	0.2	0.3	0.3	0.8
농축수산물	6.0	9.3	8.2	5.7	6.1	7.3	3.7	1.8	1.1	-1.4	1.4
공 산 품	11.2	-0.9	0.0	1.2	1.7	0.5	1.7	-0.3	-0.1	0.2	-0.2
공공서비스	9.5	3.4	1.9	1.1	2.6	2.2	3.8	0.1	0.5	1.3	1.9
개인서비스	5.3	-1.1	-1.5	-0.8	-0.4	-1.0	0.9	0.3	0.3	1.3	1.9
생산자물가	12.2	-3.5	-3.3	-1.9	0.4	-2.1	2.2	-0.1	0.0	0.1	0.0
농축수산물	3.9	16.6	15.2	5.7	3.5	10.1	0.1	2.5	-0.7	-1.2	0.6
공업제품	14.5	-5.4	-5.0	-2.8	0.2	-3.3	2.5	-0.4	0.1	0.3	-0.1
서 비 스	8.1	-3.5	-3.4	-1.4	-0.1	-2.1	1.1	-0.2	-0.3	0.2	-0.2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그러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1/4분기중 물가오름세는 1월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3월중 납입금인상 등 계절적 요인에 주로 기인.
- 실제로 1/4분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년('90~'99년)의 동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표 12 > 1~3월중 소비자물가

	'90~'99년평균	'99년	2000년
전년동기비(%)	5.9	0.7	1.5
전년말대비(%)	2.8	0.5	0.8

- 이처럼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 환율절상, 수입확대, 대형할인점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개선 등이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수출입물가: 수출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 1/4분기중 수출물가는 전년말대비 0.1% 내렸으며 전년동기비로는 0.2%하락.
- 국제유가 및 펄프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 및 종이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원화환율이 하락하고 반도체가격도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

환율(종가) : 1,138.0원/달러(99년 12월말) -->1,106.0원/달러(2000년 3월말)  
 64 MD반도체: 9.12달러/개(99년 12월말) -->6.31달러/개(2000년 3월말)

- 1/4분기중 수입물가는 전년말대비 0.8% 올랐으며 전년동기비로는 17.7% 상승.
- 대미달러화 원화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하였기 때문.

<표 13> 수출입물가(원화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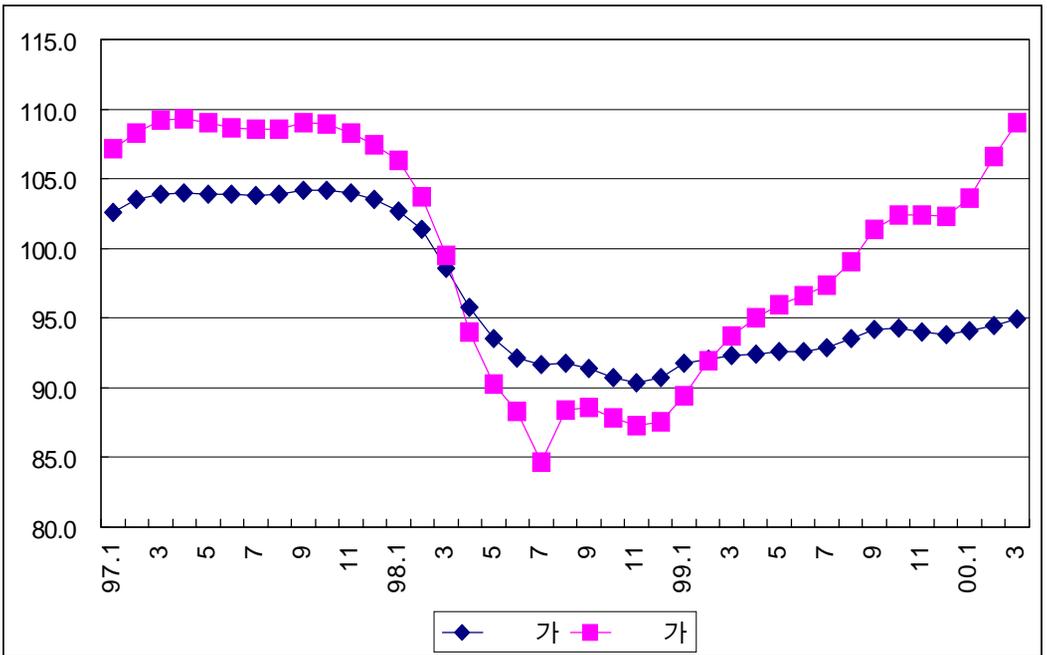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수출물가	31.3	-32.9	-19.0	-11.5	-7.0	-18.8	-0.3	(-0.1)	1.9	(0.6)	-2.2	(-0.6)	-0.2
수입물가	28.2	-28.1	-14.6	-4.0	2.4	-12.1	11.0	(-0.1)	14.7	(0.8)	11.2	(0.1)	12.3
원자재	27.9	-31.7	-16.5	-3.8	4.8	-13.2	15.8	(0.1)	20.7	(1.3)	16.7	(0.3)	17.7

주: ( )내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가격

- 봄 이사철의 영향으로 전세가를 중심으로 상승세.
- 1~3월중 전도시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2%, 3.6%상승.

<그림 3> 전도시 주택가격 추이



- 그러나 지난해 동기간의 오름세보다는 소폭 둔화된 모습.

<표 14> 부동산가격 추이

단위 : 전월(년)비, %

		1998	1999		2000			
		연간	1~3월	연간	1월	2월	3월	1~3월
주택매매가	전도시	-12.4	1.8	3.4	0.3	0.4	0.4	1.2
	서울(아파트)	-14.6	4.3	12.5	0.1	1.5	0.9	3.6
주택전세가	전도시	-18.4	7.0	16.8	1.3	2.9	2.3	6.5
	서울(아파트)	-17.2	8.2	24.2	1.5	4.3	2.6	8.7

자료: 주택은행

**명목임금 : 상승폭 확대**

- 경기상승세 지속과 함께 명목임금의 상승폭 확대.
- 명목임금은 99년 4/4분기중에도 16.1%증가하여 연간으로는 12.1% 증가. 이는 정액급여보다는 초과근로시간증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과 특별급여의 증가에 기인.
- 1월중에도 17% 증가하면서 99년보다 상승폭 확대. 이는 주로 설명절(2월 5일) 보너스 조기지급에 의한 특별급여(71.9%)의 급증에 기인.

<표 15> 명목임금(전산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1인당 임금	-2.5	5.6	10.6	15.6	16.1	12.1	17.0
정액급여	3.7	3.3	6.3	5.9	8.9	6.1	7.3
초과급여	-15.0	20.8	33.6	32.4	32.5	30.1	12.2
특별급여	-17.2	8.9	19.9	47.2	34.8	28.3	71.9

자료: 노동부

#### 4. 통화 · 금융부문

##### 통화정책

- 1/4분기중 통화지표를 살펴보면 기업 자금조달구조의 변화 및 대우사태 여파에 따르는 금융상품간의 자금이동으로 M3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M2 증가율 등 여타 금융지표는 높은 수준을 유지.
- 금년들어 1월중 M3 증가율이 6.1%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자금부족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늘어난 데다가, 대우사태의 여파로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되었기 때문.
- M2 증가율은 1/4분기중 27~28%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투신사의 대우채관련 수익증권 환매가 일단락되면서 은행대출이 크게 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이 증대하였기 때문.
- MCT+ 증가율은 은행의 금전신탁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단기시장성 수신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들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표 16> 주요 통화총량 추이

단위 : 평균, 전년동기대비, %

	1997	1998	1999	1999								2000		
	연간	연간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본원통화	-15.0	-7.2	12.1	13.3	15.4	16.2	22.3	12.2	19.2	23.7	28.6	21.2	19.9	
M2	19.2	19.0	27.9	27.4	24.2	24.8	26.6	24.1	26.7	28.5	27.8	28.2	27.2	
MCT	15.3	7.5	7.6	5.9	6.1	7.8	10.0	10.0	11.5	12.1	12.2	13.5	13.8	
MCT <sup>+1)</sup>	18.1	7.4	5.3	2.9	3.1	5.2	7.9	8.7	10.6	11.8	10.8	12.6	13.8	
M3	16.3	13.9	11.4	12.7	11.5	10.4	9.6	8.3	8.1	8.3	6.1	-	-	

주 :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

- 기업자금사정은 회사채 및 주식 발행 등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 및 CP 발행 등이 활발하고,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식발행 등을 통해 상당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대체로 원활한 편임.
- 이는 당좌대출소진율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3월말 19.3%로 전월보다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1/4분기중 여전히 20%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표 17> 당좌대출 소진률 추이<sup>1)</sup>

단위 : %

98.12말	99.9말	10말	11말	12말	2000.1말	2말	3말
19.8	23.3	21.4	21.0	13.1	19.4	18.3	19.3

주: 1) 시중은행 기준

- 1/4분기중 은행대출은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과 계절성 농사자금대출 등으로 13조 2,650억원이나 증가.
- CP 발행도 1/4분기중 8조9,00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금리가 낮은 초단기 CP로 조달하고 있는 데다 최근 신용카드사용 증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CP발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 1/4분기중 회사채 발행은 8조원을 상회하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ABS 및 후순위담보채권을 제외한 순수 기업발행분은 3조5,200억원이 순상환된 상황.

- 기업의 주식발행은 금년들어 1/4분기중 코스닥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으나 매우 저조한 수준.

<표 18> 기업의 직접금융<sup>1)</sup>을 통한 자금조달 및 은행대출 추이

단위 : 기간 중 증감, 억원

	98.12	99.12	99.1/4	2/4	3/4	4/4	2000.1	2	3
회사채 발행(순)	15,317	-3,269	30,621	24,799	-21,316	-28,014	-9,509	51,545	39,583
CP 발행(순) <sup>2)</sup>	-155,653	-118,798	211,341	-206,962	-50,988	-140,392	46,318	20,602	22,083
주식 발행 <sup>3)</sup>	7,794	86,878	27,387	74,255	49,210	118,490	3,749	7,336	8,619
은행대출	-37,794	-6,593	33,107	108,106	183,762	97,540	52,947	18,428	61,275
은행계정	-18,906	974	65,268	135,826	206,509	121,040	66,523	26,286	80,339
(상업어음할인)	14,687	29,403	-10,656	9,993	21,369	43,651	-15,411	-12,411	535
(무역금융)	755	-6,086	5,641	9,992	8,882	-772	8,040	1,962	3,764
(당좌대출)	-18,366	-23,736	8,449	-9,364	7,832	-22,906	18,398	-2,087	3,992
(일반자금)	1,870	13,522	38,890	93,593	154,838	100,723	56,543	34,120	54,410
신탁계정	-18,888	-7,567	-32,081	-27,720	-22,747	-23,500	-13,576	-7,858	-19,064

주 : 1) 8월 이후 대우그룹분 제외

2) 증권사, 은행신탁, 중금사의 CP 할인액 기준, 3월은 1~20일 기준

3) 금융기관 발행분을 제외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1/4분기중 대기업 대출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CP할인 등 단기자금 위주로 3조9,000억원이상 증가.
- 중소기업대출도 자금사정이 좋은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업어음할인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대출증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3조3,000억원 증가.

- 가계대출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져 은행들의 소매금융 강화노력 및 주택청약예금 취급은행 및 가입대상 확대(3월27일)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은행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4분기말 현재 32.1%로 사상 최고수준.

<표 19> 은행대출추이

단위 : 증감액, 억원

	98.12	99.12	1999				2000		
			1/4	2/4	3/4	4/4	1월	2월	3월
은행(신탁포함)대출	-37,794	-6,593	33,107	108,107	183,762	97,540	52,947	18,428	61,275
대기업대출	-32,179	-35,982	3,222	-14,285	43,187	-18,686	33,154	-287	6,466
중소기업대출	-2,761	9,509	12,320	45,181	77,285	54,567	17,535	-1,042	16,699
가 계 대 출	2,351	30,154	2,877	59,534	155,660	73,866	3,342	18,564	25,738

자료: 한국은행

- 2000년들어 1/4분기중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조달금액은 17조9,4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3조7,5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3% 감소하였는데 이는 거래소상장기업의 유상증자가 전년동기대비 81.5% 감소한데 기인.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14조1,874억원으로 거래소상장기업의 발행은 크게 감소(△73.6%)하였으나 비상장기업의 발행(ABS 포함)이 대폭 증가(365.5%)하였음.

<표 20>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1~3월		2000. 1~3월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2000. 3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주 식	기 업 공 개	거래소	-	-	-	-	-	-	-
		코스닥	1	29	21	2,015	6,848.3	9	605
	유 상 증 자	거래소	44	61,395	14	11,370	△81.5	3	1,663
		코스닥	3	206	50	14,949	7,156.8	15	6,050
		기타 <sup>1)</sup>	3	1,301	7	9,255	611.4	1	62
	소 계		51	62,931	92	37,589	△40.3	28	8,380
회 사 채	상 장		234	85,849	52	22,689	△73.6	21	10,203
	비상장		102	25,604	143	119,185	365.5	88	50,696
	소 계		336	111,453	195	141,874	27.3	109	60,899
총 계			387	174,384	287	179,463	2.9	137	69,279

1) 금감위등록법인의 공모

- 외환위기이후 대기업으로 집중되던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2000년 1/4분기 들어 현저하게 5대계열의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감소하는 추세.
- 2000년 1/4분기중 전체 자본시장 자금조달 중 5대계열의 조달실적은 2조9,2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1% 감소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의 34.3%에서 16.3%로 축소.
- 반면에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1조4,9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5.7% 증가.

<표 21> 기업규모에 따른 자본시장 자금조달 구조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1~3월	2000. 1~3월	증감률	2000. 3월
전 체	174,384	179,463	2.9	69,279
5대 계열	59,759 (34.3)	29,205 (16.3)	△51.1	5,437 (7.8)
중소기업	6,093 (3.5)	14,970 (8.3)	145.7	5,257 (7.6)
주식발행	62,931	37,589	△40.3	8,380
5대 계열	29,219 (46.4)	17,742 (47.2)	△39.3	1,160 (13.8)
중소기업	981 (1.6)	13,560 (36.1)	1282.3	4,867 (58.1)
회사채발행	111,453	141,874	27.3	60,899
5대 계열	30,540 (27.4)	11,463 (8.1)	△62.5	4,277 (7.0)
중소기업	5,112 (4.6)	1,410 (9.9)	△72.4	390 (0.6)

주 : ( )내는 각각의 자금조달실적에 대한 비중임

- 2000년 1월중 금액기준 전국어음부도율은 나라종금과 대한주택할부금융의 거액부도가 발생한 데다가 대우 계열사 및 관계사의 부도금액이 증가하여 0.36%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2월 들어 전국어음부도율은 나라종금과 대우계열사의 부도금액이 감소하고 지방건설업체의 부도도 현저히 줄어 0.19%를 기록.
- 신설법인/부도법인의 비율은 1999년 하반기이후 경기활성화와 함께 벤처기업 등 기업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표 22 >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1997	1998	1999	1999				2000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전국어음부도율 <sup>1)</sup>	0.40	0.38	0.33	0.11	0.12	0.70	0.35	0.36	0.19
서울	0.36	0.30	0.34	0.09	0.11	0.75	0.38	0.37	0.19
전국부도업체수	17,168	22,828	67,182	1,932	1,662	1,477	1,647	599	526
서울	6,686	8,108	2,559	721	651	204	638	247	212
신설법인/부도법인 <sup>2)</sup>	3.4	2.6	12.4	10.1	12.1	14.6	13.1	14.1	15.7

주 : 1) 전자결제액 조정, 금융기관 어음부도액 제외  
 2)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 금년들어 대우채권 관련 환매사태가 진정되면서 투신사의 자금이탈 규모가 2월을 정점으로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금융시장내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금년들어 은행권 수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부진과 4월 총선 이후의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7월의 채권시가평가제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안정성 선호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된 데 기인.
-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은행들간의 외형확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인상한 점도 은행권으로 자금이 유입된 원인으로 작용.

- 은행의 수신은 1/4분기중 28조원이나 증가한 반면 투신사의 수신은 22조원 감소하였음.
- 1월과 2월에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으로의 자금 중 비교적 장기성 예금인 정기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3월 들어서는 단기적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늘어나는 모습.

<표 23>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98.12 (잔액)	99.12 (잔액)	99.1/4	2/4	3/4	4/4	1월	2월	3월 <sup>1)</sup>
은행	요구불	216,454	24811	-21,175	24,583	7,631	18,762	-14,275	-4,342	-24,589
	저축성	2,129,251	276,440	197,856	-733	269,216	169,638	98,860	125,077	66,719
	CD순발행	91,856	8,031	-4,399	34,304	-31,523	150,499	4,284	7,028	-935
	금전신탁	1,558,990	1,178,550	-145,396	-17,713	-76,578	-140,749	-19,524	-28,392	-32,881
	소계	3,996,561	427,137	26,886	40,441	168,746	198,150	84,536	140,632	55,110
투신	공사채형	1,835,392	127,893	362,923	-82,397	-373,546	-471,372	-49,387	-168,780	-95,779
	(장기)	951,264	65,622	143,797	9,282	-148,311	-274,770	-29,641	-137,390	-93,295
	(단기)	884,128	62,271	219,126	-91,679	-225,235	-196,602	-19,746	-31,390	-2,484
	(MMF)	133,018	22,522	71,048	115,498	-101,144	-9,355	16,066	12,891	28,171
	주식형	83,155	55,560	39,874	184,412	139,924	108,233	25,551	28,394	39,509
	소계	2,051,565	183,453	473,845	217,513	-334,766	-363,139	-23,836	-140,386	-56,270
증권	고객예탁금	37,773	6,992	15,524	28,159	24,761	-36,298	24,156	11,898	2,162
	RP	25,247	1,315	-4,157	-4,529	-3,196	-216	276	-1,152	3,797
	소계	63,020	8,307	11,367	23,630	21,565	-36,514	24,432	10,746	5,959
종금	자발어음	223,016	14,251	-6,392	14,722	-4,277	1,231	6,711	2,302	-2,522
	CMA	64,900	3,925	-5,906	-14,964	9,549	-3,129	-8,981	-306	-3,064
	어음매출	116,137	2,899	20,658	-39,941	-25,641	-27,886	-5,220	-1,943	4,006
	소계	404,053	21,075	8,360	-40,183	-20,369	-29,784	-7,490	53	-1,580
	어음할인	218,308	106,037	-15,705	-48,716	-14,499	-25,135	-8,460	-2,239	582

주 : 1) 종금사는 3.1-29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투신사의 경우는 대우환매사태가 2월을 정점으로 일단락되면서 장기공사채형 증권의 감소세가 3월 들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코스닥 공모주의 우선 배정과 이자소득세의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CBO펀드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자금이탈규모는 점차로 줄어드는 양상.
- 종금사는 1월중 나라종금의 영업정지 사태이후 어려움을 겪었으나 발행어음 등 단기성자금이 유입되면서 점차로 회복되는 모습.

- 2000년 들어 주식시장은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적인 금리인상 추세와 무역수지의 예상외의 악화, 유가 급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매수여력 축소로 인해 약세를 지속.
- 코스닥시장은 1월중에는 25.7% 하락, 2월에는 39.9% 급상승, 3월중 16.9% 하락 등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
-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999년중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금년들어서는 다소 위축.

<표 24>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1998	1999	99.1/4	2/4	3/4	4/4(P)	2000.1월	2월	3월
유상증자	134,520	173,858	52	70,853	40,126	62,827	7,764	1,943	1,587
기업공개	367	153,576	15,373	21,255	107,010	9,938	-	-	-
소 계	134,887	327,434	15,425	92,108	147,136	72,765	7,764	1,943	1,587
고객예탁금잔액	37,773	69,919	53,296	81,456	106,216	69,919	94,075	105,973	108,131
신용융자잔고	4,674	6,828	5,662	7,869	8,565	6,828	5,970	4,647	3,865

주 :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 장단기 금리

- 콜금리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감과 2월 10일 단기정책금리의 0.25%p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5%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움직임.
- 특히 금융기관의 풍부한 단기유동성을 바탕으로 콜금리는 금융당국의 정책의지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 모습.

- 3개월물 CP금리는 2000년 1월 들어 대우여파로 상승하였으나 발행물량이 크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의 단기물량에 대한 선호도 확대로 1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대우사태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던 장기금리는 2월 초순 대우채권의 환매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 이후 상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움직임 지속.
- 회사채유통수익률의 경우 10%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국고채 수익률도 9%를 중심으로 등락.
-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금융시장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 기업의 자금수요 부진, 정부의 금리안정의지에 기인.
- 전년도 대규모 유상증자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어 회사채 발행물량이 크지 않는 등 채권시장의 수급차원에서 채권공급이 적었던 점도 금리안정에 기여.
- 특히 일반 회사채의 발행보다 채권담보부증권(CBO), 자산담보부채권(ABS) 등의 유통화 관련 회사채의 발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업들이 발행하는 순수 회사채는 금년들어 1/4분기중 순상환기조를 유지.
- 정부도 금리안정을 위해 3월에 예정하였던 1조3,000억원의 외평채 추가 발행을 취소하였으며 국고채 발행도 당초보다 축소시키는 등 국채발행물량을 조절.

- 채권 수요차원에서는 대우사태이후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기관들이 만기가 1년미만인 단기채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금리수준이 안정된 가운데서도 내적 불안감이 상존해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최근들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채 수요가 증대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

<표 25> 주요시장금리추이

단위 : 기말기준, 연%

	97년	98년	99년	1999년								2000년		
	12월	12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콜(익일) (A)	13.5	14.8	4.71	4.79	4.77	4.73	4.72	4.70	4.70	4.71	4.72	4.95	5.03	
CP(91일)	14.9	15.9	7.47	6.34	6.82	7.95	8.01	7.60	7.27	7.47	7.63	7.42	7.29	
국고채(3년)(B)	15.6	7.5	9.22	7.16	8.20	9.26	9.76	8.60	8.80	9.22	9.70	8.99	9.41	
회사채(3년)(C)	13.4	15.1	9.85	8.06	8.58	9.88	10.41	9.12	9.53	9.85	10.25	10.01	10.00	
B - A(%p)	2.1	-7.3	4.51	2.37	3.43	4.53	5.04	3.90	4.10	4.51	4.98	4.04	4.38	
C - A(%p)	-0.1	0.3	5.14	3.27	3.81	5.15	5.69	4.42	4.83	5.14	5.53	5.06	4.97	

주 : 월 평균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환율 및 외환보유고**

- 1999년 3월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836.5억달러를 기록하여 1999년 12월말대비 96억달러나 증가.
- 정부가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응하여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유지를 위해 원화절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면서 외환보유고가 일평균 1억달러 이상 증가하는 모습.

<표 26>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달러

	1997	1998	1999	1999년				2000년		
	12월	12월	12월	1/4	2/4	3/4	4/4	1월	2월	3월
외 환 보 유 고	204.1	520.4	740.5	574.5	619.9	656.8	740.5	767.9	797.3	836.5
가용외환보유고 <sup>1)</sup>	88.7	485.1	-	544.5	604.3	654.8	-	-	-	-

주 : 1) 가용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의 차이가 태국중앙은행과의 스왑한 2억달러만 남게 됨으로써 99년 8월부터는 외환보유액 통계를 가용외환보유액 개념으로 일원화.

자료 : 한국은행

- 1/4분기중 원·달러환율은 무역수지가 당초 예상되었던 15억달러보다 감소한 7억 4,600만달러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과 4월 외채 중장기 전환분을 앞둔 금융기관의 외채조달 등으로 전년말 1,145원에서 3월말 1,108.30원까지 하락.
- 원·달러환율은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여부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규모에 따라 등락을 거듭.
- 2월 중순 무역수지 관리를 위한 외환당국의 집중 개입으로 원·달러환율은 2월 하순 한때 1,141원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음.
- 이후 2월의 무역수지가 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경제정책의 초점이 금리에 맞추어지면서 원·달러환율은 다시 하락세로 반전.

<표 27> 환율추이

	1997	1998	1999	1999				2000		
	12월	12월	12월	1/4	2/4	3/4	4/4	1월	2월	3월
₩/US\$	1,415.20	1,207.80	1,145.40	1,224.7	1,155.9	1,218.7	1,145.4	1,122.1	1,131.8	1,108.3
변화율 <sup>1)</sup>	-67.6	14.7	5.2	-1.4	4.3	-0.9	5.2	2.0	1.2	3.2
₩/100¥	1,291.36	1,039.86	1,120.04	1,030.45	953.48	1,146.15	1,120.04	1,047.79	1,034.36	1,046.95
변화율 <sup>1)</sup>	-77.4	19.5	-7.7	0.9	8.3	-10.2	-7.7	6.5	7.6	6.5

주 : 1) 전년말 대비 절상(+), 절하(-)율(%)

2) 월(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제 2 장

#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1. 성장

- 2000년중 세계경제는 유로경제의 회복세 확대와 중남미 신흥시장국 경제의 회복국면 진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세계교역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높은 신장세를 지속할 전망.

<표 28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IMF	WEFA	IMF	WEFA
세계경제 성장률	4.1	4.1	2.5	3.3	4.2	3.3	3.9	3.5
미 국	3.6	4.2	4.3	4.2	4.4	3.1	3.0	3.4
일 본	5.0	1.6	-2.5	0.3	0.9	2.0	1.8	2.6
E U	1.7	2.6	2.7	2.3	3.2	2.9	3.0	2.6
아 시 아	8.3	6.7	3.8	6.0	6.2	6.0	5.9	6.4
세계교역 신장률	6.7	9.7	4.2	4.6	7.9	7.5	7.2	7.2

주 : 실적치는 IMF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4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0.1/4

### 미국

- 미 상무부는 작년 4/4분기중 GDP 성장률을 6.9%에서 7.3%로 상향 확정(3/30).
- 이것은 주로 수입 증가율의 하향 수정과 수출 및 민간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의 상향 수정에 기인.

- 올해 미국경제는 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기업투자 위축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WEFA).

<표 29>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

	1997	1998	1999			
			연간	2/4	3/4	4/4
실질GDP 성장률	4.5	4.3	4.1	1.9	5.7	7.3(6.9) <sup>1)</sup>
경상수지(억달러)	-1435	-2206	-3389	-807	-891	-998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1.6	2.7	2.1	2.3	2.6

자료 : 미 연준, IMF, 미 상무부

1) 6.9%는 잠정치로 2월 25일 발표되었음

**일본**

- 일본경제는 지난해 1/4분기중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4/4분기 들어 성장률이 하락하여 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올해 일본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기부양책 추진과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 확대에 의한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표 30>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

	1997	1998	1999			
			연간	2/4	3/4	4/4
실질GDP 성장률	1.6	-2.5	0.3	0.9	0.9	0.0
경상수지(억엔)	114363	157846	121972	32525	32666	27660
소비자 물가상승률	1.8	0.6	-0.3	-0.3	0	-1.0

자료 : 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

**E U**

- 유로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완만한 물가상승세를 시현하였고 유가상승 및 유로화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하여 금년 2월중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여 전월(1.9%)보다 소폭상승 하였음.
- 영국의 경우 1999년중 GDP 성장률은 2.1%을 기록하여 전년(2.2%)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축소 되었음.
- 2000~2001년 유로경제의 성장률을 IMF는 3%대, WEFA는 2%대로 지난해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2. 원자재 가격

- 국제유가는 지난해 말부터 올 3월 초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3월말 현재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지지 발언과 OPEC회원국들이 4월부터 증산할 것을 합의한 것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OPEC의 증산합의가 이행될 경우 하향안정세를 유지함으로써 연평균 배럴당 22달러 내외를 나타낼 전망(Brent油 기준).
- 2000년중 곡물 및 비금속 등 기타 원자재 가격은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수요확대로 과잉재고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

<표 31> 원유 및 원자재 가격

	1998	1999		2000			
		11	12	1	2	3	4 <sup>1)</sup>
WTI(달러/배럴)	12.14	24.87	25.76	27.27	30.34	26.86	25.44
Brent(달러/배럴)	10.54	24.86	24.93	26.60	28.93	24.25	21.68
쌀(달러/100파운드)	8.79	5.74	5.14	5.94	5.32	5.84	5.64
옥수수(센트/부셸)	213.5	187.5	204.5	223.5	213.3	236.0	229.3
소맥(센트/부셸)	276.3	233.0	248.5	259.8	248.0	262.3	258.5
동(달러/톤)	1455.5	1750.5	1855.0	1820.5	1793.0	1734.0	1654.6
원면(센트/부셸)	60.4	50.6	50.7	57.5	58.9	58.1	56.3

자료 : 한국은행(기말기준)

1) WTI는 4월 13일 기준, 그외에는 4월 7일 기준

### 3. 국제금리 · 환율

- 미국의 단기금리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금년 3월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장기금리는 올해 초부터 하락세를 유지.
- 일본의 단기금리는 일본은행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금리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반면 장기금리는 상반기까지

는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표 32> 국제금리

	1998	1999		2000			
		11	12	1	2	3	4 <sup>2)</sup>
미국재정증권(3월)	4.47	5.30	5.32	5.71	5.79	5.88	5.81
미국정부채(30년)	5.10	6.30	6.49	6.49	6.14	5.84	5.80
일본정부채(10년)	2.22	1.82	1.65	1.62	1.85	1.78	1.81
독일정부채(10년)	3.87	5.13	5.36	5.63	5.50	5.22	5.20
US LIBOR(3월)	5.06	6.11	6.00	6.08	6.11	6.29	6.28
¥ LIBOR(3월)	0.54	0.32	0.19	0.13	0.13	0.12	0.13
EURO LIBOR(3월) <sup>1)</sup>	3.24	3.45	3.34	3.49	3.63	3.83	3.92

자료 : 한국은행(기말기준)

1) 영국은행협회(BBA)가 런던소재 16개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집계, 발표하는 EURO화 금리

2) 4월 13일 기준

- 지난해 말 초강세를 보이던 엔화는 금년 2월부터 약세로 돌아섰으며 3월말에는 다시 강세를 보임.
- 미국 경제의 금년중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그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일간 금리차가 확대됨에 따라 엔화 가치가 하락세 시현할 것으로 전망.

<표 33> 주요국 환율

	1998	1999		2000			
		11	12	1	2	3	4 <sup>2)</sup>
US\$/SDR	1.4080	1.3696	1.3725	1.3529	1.3393	1.3469	1.3424
US\$/EUR <sup>1)</sup>	1.1668	1.0091	1.0098	0.9702	0.9645	0.9554	0.9536
US\$/£	1.6595	1.5985	1.6157	1.6163	1.5791	1.5919	1.5865
¥/US\$	113.45	102.10	102.23	107.37	110.18	102.70	105.90

자료 : 한국은행(기말기준)

1) 98년까지는 ECU화 환율임.

2) 4월 1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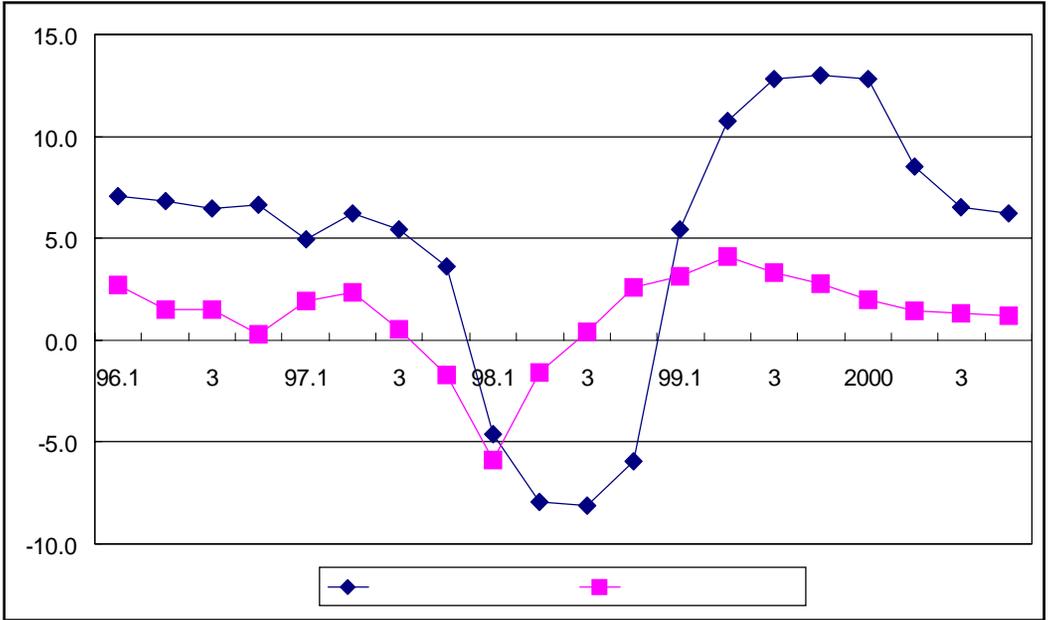
## 제 3 장

## 2000/2001년 경제전망

## 1. 실물부문

- 우리경제는 '99년 4/4분기중 13.0%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올 1/4분기중에도 12%내외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이같은 성장세는 상반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에는 다소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고려한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성장률 10.7%보다 다소 낮은 8%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상반기중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외에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지출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GDP)은 상반기중 10%이상 그리고 하반기에는 6%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특히, 하반기중에는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나 건설투자 회복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두 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연간성장은 8%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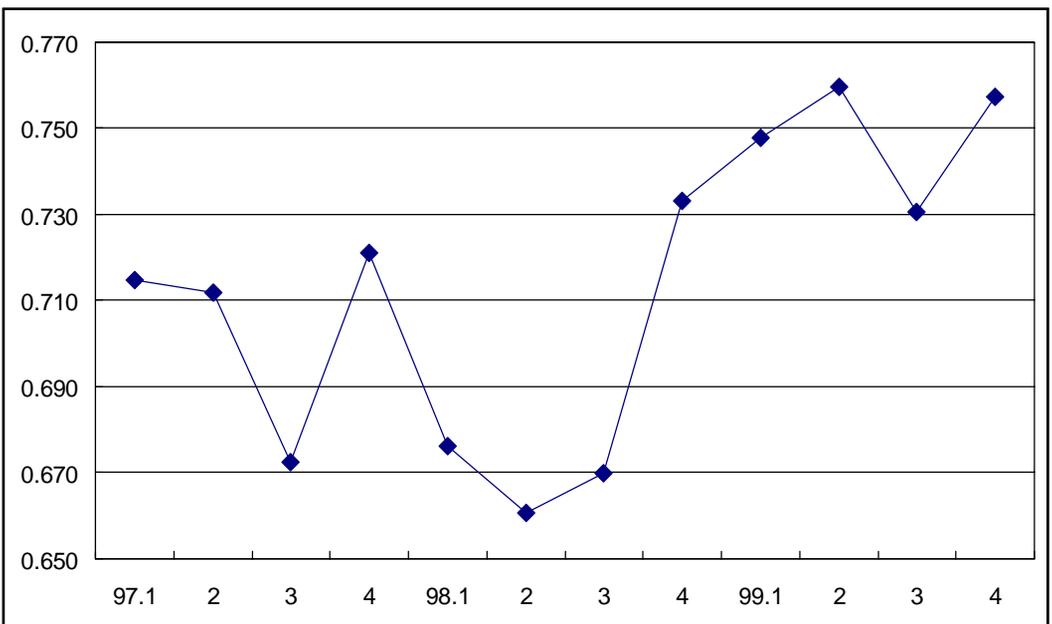
- 지난 해 2/4분기이후 증가세로 반전한 재고수준은 올해 들어 전년동기 수준을 상회하면서 수요신장에 기여하고 있어 재고확충에 의한 성장효과가 지속되고 있음.

<표 34> 재고변동의 성장에의 기여도 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재고증감(%)	0.6	-2.0	-5.5	5.5	8.2	6.0
GDP(%)	6.8	5.0	-6.7	10.7	0.6	0.3

- 2001년중에는 재고신장에 의한 수요증가효과는 없겠으나 연중 8%내외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 98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효과는 2000년 1/4분기를 전후하여, 그리고 팽창적인 금융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시차효과는 2000년 하반기중 소멸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확대 추세가 내구재를 거쳐 비내구재 및 서비스재화로 과급되면서 당분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소비지출증가 예상. 임금상승과 실업률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안정되고 제한적이거나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등 구조조정과 경기추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2000년중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민간소비지출 예상.

&lt;그림 5&gt; 평균소비성향(도시근로자가계)



- 99년중 감소(-10.4%)했던 건설투자가 증가세(1.2%)로 반전하고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성장에 대한 기여가 증대할 전망. SOC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제약에 따라 민간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증가세가 건설투자를 주도할 전망.
- 원화절상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주력품목의 시황 호조에 따라 수출도 14%내외 증가 예상. 특히 통화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경제가 활기를 회복하고 있고 우려되었던 중국경제도 7%대의 성장이 예견되고 수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생산활동의 증가와 향후 경기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의 호전이 예상되나 당분간 4%내외의 실업률, 100만명 내외의 실업자수의 유지 전망.
- 예상보다 빠른 실물부문 회복과 정부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지난 해 2월(8.7%)을 고비로 낮아져 11월중 4.4%까지 낮아졌으나 최근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5%대로 높아짐.
- 지난해 2/4분기이후 취업자수가 2천만명을 넘었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27만명(2000년 2월중)으로 외환위기이전(97년 11월의 2,125만1천명)수준.
- 그러나 경기확장과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실업률은 4%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lt;표 35&gt; 2000/2001년 거시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1998	1999	2000					연간	2001
			1/4	2/4	3/4	4/4			
국내총생산	-6.7	10.7	12.8	8.5	6.5	6.2	8.2	6.0	
(제조업)	-7.4	21.8	24.5	14.7	8.7	8.4	13.6	6.3	
총소비	-9.6	8.6	9.9	8.8	5.7	6.0	7.5	5.8	
민간소비	-11.1	10.4	11.1	9.9	6.5	6.7	8.4	6.3	
고정자본형성	-21.7	5.1	13.1	14.4	7.6	7.4	10.4	9.6	
설비투자	-38.7	38.3	45.2	34.2	11.4	8.8	23.1	8.8	
건설투자	-10.0	-10.4	-10.6	1.8	4.6	6.4	1.2	10.3	
총수출	13.9	15.7	26.0	15.2	13.4	13.5	16.7	6.3	
총수입	-22.3	28.9	43.6	32.6	30.5	23.4	31.9	11.3	
생산자 물가	12.2	-2.1	2.1	2.6	3.0	1.8	2.4	2.2	
소비자 물가	7.5	0.8	1.5	2.8	2.1	2.3	2.2	3.0	
경상수지	405.6	250.2	19.3	24.3	27.4	34.0	105.1	48.3	
상품수지	416.3	287.2	24.4	32.9	34.4	42.4	134.1	75.8	
수출	1321.2	1454.9	403.6	413.1	406.7	446.8	1670.2	1776.3	
증가율(%)	-4.7	10.1	28.2	15.7	11.6	6.6	14.8	6.4	
수입	904.9	1167.8	379.2	380.2	372.3	404.4	1536.1	1700.5	
증가율(%)	-36.2	29.0	53.5	37.0	26.2	16.1	31.5	10.7	
서비스, 소득 & 이전	-10.7	-37.0	-5.1	-8.5	-7.0	-8.4	-29.0	-27.4	
원/달러 환율(기말)	1204.0	1138.0	1106.0	1097.3	1088.7	1080.0	1080.0	1050.0	
엔/달러 환율(기말)	113.4	102.2	106.6	104.4	102.2	100.0	100.0	100.0	
M3증가율(평잔, %)	13.9	11.3	8.6	9.4	10.8	10.7	9.9	10.2	
회사채수익률(평균, %)	15.1	8.9	10.1	10.2	10.2	10.2	10.2	9.9	

## 2. 물가부문

- 9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진 소비자물가상승세는 '99년 4/4분기중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1%내외의 상승에 그쳐 99년중 연평균 0.8%의 사상최저의 물가상승을 기록.
- 99년중 환율변동폭이 작아지고 유가를 제외한 국제원자재가격과 단위노동비용 등 각종 비용요인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아직 크지 않아 물가상승압력이 비교적 낮았음.
- 연중 환율은 국내외환수급을 반영, 98년 연평균 1,400원/\$에서 99년에는 1,170원/\$대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
- 재고증감을 제외한 GDP규모는 98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99년중 총수요(GDP Gap) 압력에 의한 물가요인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99년 4/4분기중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진 물가수준이 2000년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은 99년보다 높아진 2.2%에 달할 전망.
- 2000년중에도 5%내외의 원화절상이 예상되고 국제원자재가격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 2~3년간에 비해 큰 폭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
- 연중 환율은 국내외환수급을 반영, '98년 연평균 1,400원/\$에서 '99년 1,180원/\$내외에서 2000년에는 1,100~1,050원/\$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

### 3. 대외거래부문

- 2000년중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9년 실적에 비해 반감한 140억불 및 100억불내외로 각각 전망.
- '98년중 400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흑자는 '99년 상반기중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125.3억불에 그쳤으며 하반기중 빠른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간 흑자폭은 250억불내외에 그침.
- 2000년중에도 각 부문별 최종수요와 생산활동이 외환위기 이전규모를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수지 흑자의 축소추세가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GDP대비 경상수지는 98년중 12.8%, 99년중에는 6.1%에서 2000년에는 2.3%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산.
-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추세는 수입급증 추세의 지속에 따른 결과임.
- 99년 3/4분기중 16%, 4/4분기중 21.4%의 높은 증가를 기록중인 수출(국제수지기준)은 2000년중에도 대외경제 변수들의 호조로 두자리 수(14%)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수입이 99년 하반기 40%, 금년 1/4분기중 50%이상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 연간 30%내외의 증가가 예상됨.
- 서비스, 소득 및 경상이전수지의 적자는 99년중 다시 확대되었으나 2000년중에는 소득수지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소폭 축소될

전망.

#### 4. 금융부문

##### 통화정책

- 지난 1/4분기 M2 증가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4분기 중에도 M2, MCT 등 주요 통화지표의 수준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민간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경기상승기조가 지속될 경우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의미에서 적절한 통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 현재 5%대 초반의 콜금리 수준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4~5%대의 장단기 금리차도 지나치게 커서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고 있음.
- 단기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까지 현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금리 인상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 이는 오는 7월 시행될 채권시가평가제를 비롯해 대우채펀드의 금융기관 자금 환매 허용 등 금융시장 불안정요인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기 때문임.

##### 기업자금사정

-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부유보자금의 증가로 금년도 2/4분기 이후 신규자금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1999년도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작년도 기업부문의 자금부족규모는 경기회복 및 금리안정에 따르는 기업수지 개선과 수익성 호조로 1998년과 비슷한 30조4,000억원 수준.
- 반면 1999년중 개인부문의 자금잉여규모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39조8,000억원.

&lt;표 36&gt; 기업 및 개인부문의 자금과부족 추이

단위 : 조원

	1996	1997	1998	1999
기업부문의 자금부족액	68.9	63.6	29.6	30.4
자 금 조 달 액	118.8	118.0	27.7	53.6
간 접 금 융	33.2	43.4	-15.9	2.1
직 접 금 융	56.1	44.1	49.5	26.8
국 외 차 입	12.4	6.6	-9.8	10.0
자 금 운 용 액	49.9	54.4	-1.9	23.2
개인부문의 자금잉여액	37.5	39.9	84.1	39.8
자 금 조 달 액	38.8	46.4	-30.2	23.3
자 금 운 용 액	76.4	86.3	53.9	63.1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 그러나 잉여자금보전비율(개인잉여자금/기업부족자금)은 1998년 284.1%에서 1999년 130.9%로 절반이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0%를 상회.
- 이에 따라 기업부문의 자금부족분이 개인부문의 자금잉여로 보전이 가능하고 당기순이익 증가로 내부유보자금도 넉넉하여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원활할 전망이다.
- 더욱이 산업은행이 조사한 기업의 2000년중 설비투자 규모가 25조3,671억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1997년 평균의 약 75%에 불과한 실정.
- 게다가 1999년중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내부유보자금도 늘어 향후 기업자금수요 증가에 의한 금리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특히 2000년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자금조달 중 내부자금 비중이 전년의 62.7% 보다 크게 높은 71.6%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외부자금 차입은 부진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표 37> 1999년 12월 결산 법인의 부채비율 및 영업실적 현황

		1998	1999	비고
부채비율(%)	전 체	278.4	147.5	-130.9%P
	상장법인	275.1	147.8	-127.3%P
경상이익(억원)	전 체	-185,720	135,551	흑자전환
	상장법인	-157,011	127,099	"
당기순이익(억원)	전 체	278,954	96,148	"
	상장법인	246,760	87,883	"

자료 : 금융감독원, 『199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사 및 협회등록법인 결산실적』, 2000, 4

## 장단기 금리

- 2/4분기중 콜금리는 통화당국의 단기금리인상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지속과 금융기관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콜금리의 인상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당국이 점진적으로 긴축통화정책을 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콜금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전망이다.
- 2/4분기중 장기금리는 3월결산 이후 제2금융권의 자금운용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기업자금수요의 부진으로 양호한 채권수급상황이 이어지면서 소폭의 하락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1999년 4월이후 판매되기 시작한 은행권의 단위형 금전신탁의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라 청산을 위한 은행권의 유가증권 처분증대가 장기금리의 일시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총선이후의 물가 및 금융권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장기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면서 장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다만 정부의 금리안정의지가 확고하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양호한 상태여서 장기금리의 상승폭 역시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표 38> 2000년중 장단기 금리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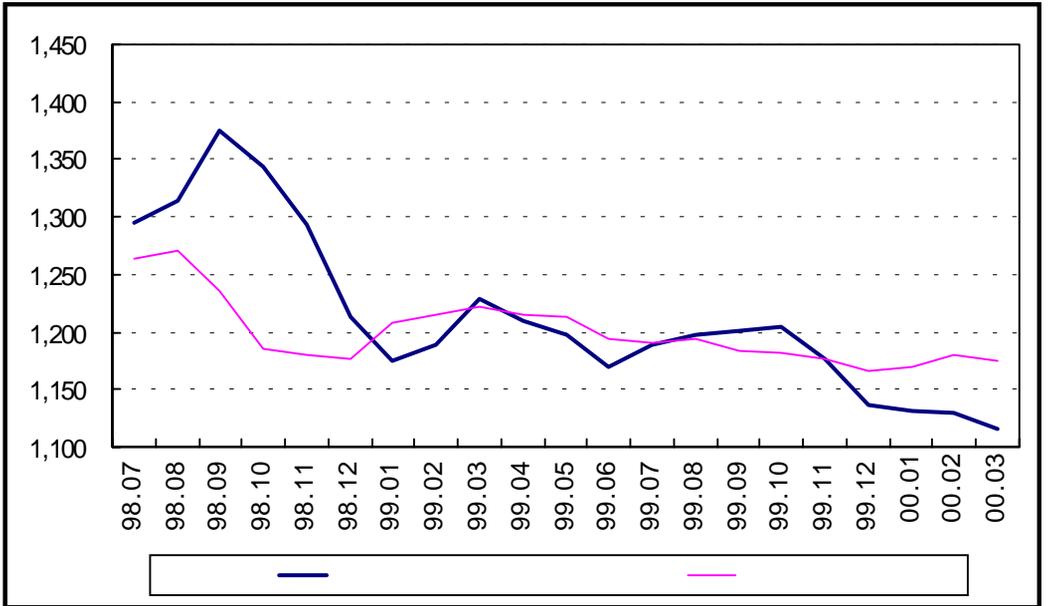
	1999.12	2000(E)				
		1/4	2/4	3/4	4/4	연간
콜	4.71	4.95	5.30	5.80	6.50	5.60
회사채	10.06	10.09	10.15	10.25	10.20	10.17

주 : 기간 평균기준임

환율

-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모형에 의한 실질실효환율 차원에서 원화의 적정환율은 1999년 중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0년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실제 환율은 2000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3월말 현재 실제환율은 1,108.30원으로 실질실효환율 기준(1985년 경제기준) 적정환율인 1174.17원을 하회.
- 최근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환율수준에는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정도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규모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금년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규모는 160억달러인데 1/4분기중 약 8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된 점에 미루어 금년중 외국인 투자자금에 의한 원화절상압력이 적지 않을 전망.

<그림 6> 실제환율과 적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 그러나 최근 무역수지흑자 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당국도 외평채 발행, 금융기관의 외채만기도래 조기상환 등 원화절상 억제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 2000년중 원·달러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이며 연말 기준 1,080원에서 형성 전망.

<표 39> 2000년중 환율 전망

단위 : %

	1999.12	2000				
		1/4	2/4(E)	3/4(E)	4/4(E)	연간(E)
원·달러환율	1145.40	1108.3	1088.7	1080.0	1080.0	1080.0
원·엔환율	1120.04	1147.0	1090.0	1110.0	1100.0	1100.0

주 : 기간말기준

## 제 4 장

#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1. 거시경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가. 경기활황세의 고점 도달

- 최근의 경기상황은 IMF외환위기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V자형의 급속한 회복세를 시현하고 그 정점에 도달한 상태임.
- 작년 4/4분기의 연 13% 성장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연 12.8%에 달하는 고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이후 금년 1/4분기까지 일년 동안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2/4분기 이후부터는 10%를 초과하는 고성장세가 둔화되고 잠재성장률 수준인 6%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2월중 생산, 출하, 소비 등 실물경제지표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상승속도는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가 모두 전월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

#### 나. 인플레이션 현상이 현재화되고 있지 않음

- 4분기 동안 계속되고 있는 두자리 수의 높은 성장세속에서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직까지는 현재화되지 않고 있음.
- 1/4분기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머물고 있음.
- 과거의 경기순환 경험에 따르면 지금쯤 수요부문의 초과현상이 발생하여 물가와 임금의 상승이 현재화될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초과수요에 의한 물가상승현상이 목도되지 않고 있음.

### 다. '신경제' 중심의 경기활황

- 생산, 고용, 창업 등의 경제활동이 디지털, 인터넷 위주의 신경제(new economy)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부문의 생산이 제조업 생산활동을 주도.
- 벤처기업 창업확산, 정보화근로사업의 시행으로 인터넷 관련부문의 고용이 확대.
-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tech stocks)의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주식매수청구권(stock option)을 매개로 한 자금, 인력, 기술 등이 구경제(old economy)에서 신경제로 활발히 이전되고 있음.

### 라. 주식시장의 조정 지속

- 연초까지만 하여도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었던 주식시장은 기대와는 달리 4개월째 조정국면에 진입.
- 작년중 부채감축을 위해 실시되었던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시장에 수급악화요인으로 작용.
- 세계증시의 동조화 심화로 인하여 미국증시의 침체가 국내 증시의 위축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으며, 최근의 미국 Nasdaq시장의 침체는 국내 Kosdaq시장의 급락을 초래하고 있음.

	직전 고점	최근 저점	하락률
Kospi	1,059(1/4)	707(4/17)	-33.2%
Kosdaq	283(3/10)	173(4/17)	-38.9%
Dow	11,722(1/14)	10,305(4/14)	-12.0%
Nasdaq	5,048(3/10)	3,321(4/14)	-34.2%

### 향후 정책대응

#### 가. 긴축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하지 않음

- 최근의 경기상황이 12~3%에 이르는 고성장세로 인하여 경기과열이 우려되고 있지만, 그 상승속도가 완화되고 있고, 또한 하반기이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총수요관리측면에서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요구되지는 않음.
- 다만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금리차이를 줄이는 측면과 금융시장에 잠재해 있는 금리상승 기대심리를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단기금리의 소폭 인상이 요망됨.
- 금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인플레이션이 현재화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예상되지 않음. 오히려 정책당국에 의한 저금리 고수 정책이 시장참가자들에게는 역으로 금리상승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소폭의 단기금리 인상은 장기금리의 상승없이 장차의 금리상승 기대감을 불

식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콜금리의 인상을 통하여 장·단기금리차이를 해소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최근의 위축된 채권시장의 활성화도 동시에 시도되어야 함.
- 현재 상황에서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향후 실물 및 금융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내외 불균형 발생시 민활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나. 구조조정 일정의 수립·공표

- 2차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일정을 명확히 공표하고 추진해 나가야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음.
- 최근 2차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하여 이것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지 여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자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 투신, 증권을 비롯한 금융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과 추진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참여자의 불안요인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율적인 M&A 대신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금융기관사이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 인플레이션 대비책 마련

- 금년중 물가상승압력은 아직 현재화되고 있지 않음
- 이는 환율절상<sup>1)</sup>, 대형할인점 및 전자상거래 등의 유통혁신<sup>2)</sup>, 노동시장의 유연화, 합리적 소비행위 강화, 경제개방화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금년중에는 국제원자재가격 강세, 임금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등 물가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는데다 향후 경기상승세 지속시 경제내의 여유공급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잠재.
- 인플레이션 관련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 시중에 유동성이 대규모 공급되어 있고 단기부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M3증가율은 금융자산의 주식화 등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M2증가율은 금년중 27~8%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의 잠복요인으로 남아 있음.

## 라.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와 안정화 모색

- 1) 99년중 원화환율은 5.5% 절상되었고, 금년 1/4분기중에도 2.8% 절상됨(2000.3말 1,106₩/\$ ← 1999년말 1,138₩/\$ ← 1998년말 1,204₩/\$)
- 2) 1996년부터 대형할인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유통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나타난 직접적 효과만을 측정하더라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연간 0.45%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은행 조사국, “유통구조 변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 2000.1)

- IMF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던 주식시장이 최근 침체를 보임에 따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변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벤처기업 붐을 주도하였던 Kosdaq시장의 침체는 곧 바로 신경제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리고 IMF위기 이후 기업금융의 채널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안정화가 요긴함.
- 주식시장의 안정화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함.
- 작년중 실시되었던 부채비율 200% 정책은 결국 달성되었지만, 금년중 대규모 물량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음.
- 투신, 증권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정부당국의 작업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은 장기호황이 종식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반면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여건 측면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 마. 신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책 방향

- 지난 하반기 이후 불기 시작한 벤처기업 창업 열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중심축

이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이전하기 시작함.

-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강도와 속도로 경제내의 자원이 벤처기업군으로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신경제는 기본적으로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원리에 주로 의존한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90년대 들어 미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벤처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규모수익체증이 담보된다고는 보기 어려움. 따라서 성공확률이 높은 곳으로 자원이 투입되도록 유도하여야 함.
- 경제내의 자원이동은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자본 및 노동의 요소 시장이 한계생산성에 기초하여 결정될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음.
- 벤처기업에 요구되는 요소는 자본(capital)이나 인력(labor)보다는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이므로, 지식이 내재되지(embodied) 않은 인력 및 과도한 자금의 투입은 오히려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벤처 창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개별 기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망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학생, 사회, 및 직업교육에 걸친 교육 인프라의 재구축이 장기적으로 더욱 절실한 실정임.

## 2. 금융개혁

### 금융개혁의 평가

- 외환위기이후 정부가 취한 금융개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임.
-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IMF, IBRD 등과의 협의 하에 취한 전략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취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음.
-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금융위기이후 1998년 중반까지에 이르는 기간으로 동기간 동안에는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을 태동시키며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민간부문의 대외 부채를 재조정하였음.
- 두 번째 단계는 1998년 중반이후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왔음.
- 한국의 금융위기는 취약한 금융부문과 여기에 대한 감독 소홀, 기업의 과도한 부채 비율과 수익력이 낮은 부문의 과잉투자 및 취약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기인한 것은 사실.
- 그러나 고도성장과정에서 정부의 금융부문에 대한 간섭이 취약한 금융부문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 또한 한국의 단기금융시장은 1993년에 개방되었던 반면, 장기금융시장의 개방은 한정된 부문에 국한되어 있었고,
- 자본시장이 미발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장기투자 조차 해외단기자금으로 조달하는 상황이 전개.
-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국가에 취한 방법과 동일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으로 독립된 금융감독기능을 강화
- 원칙은 자생능력이 있는 금융기관과 없는 금융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생능력이 없는 기관은 폐쇄하고 자생능력이 있는 기관은 공적자금을 넣어 자본능력을 확충하는 것임.
-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기관의 경우이긴 하나 공적자금 투여과정에서 우량금융기관 대비 부실금융기관의 차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난 2년간 추진되어 온 금융부문의 개혁은 위기이후 상실된 시장신뢰도를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신사 문제와 맞물려 금융당국이 부실요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취약한 금융시스템 하에서 증폭될 수 있는 시장불안해소에 주력하는 정책을 선택.
- 이로 인해 자율·책임경영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원칙의 확립은 그만큼 늦어

질 수밖에 없었으며 예금자, 금융기관 당사자, 정책당국 등 금융계 각 부문에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더욱이 연초부터 대내외적 환경은 디지털 경제의 대두에서 엔화 및 유로화의 가치 불안정·원자재 가격상승·세계적인 유동성 축소와 금리상승세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부문은 이제서야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한 상태.
- 그동안 금융기관들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개별단위의 건전성 목표달성이 강조되었고 실제로 자기자본비율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대응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이는 자본시장의 급속한 신장과 전통 은행기능의 위축을 추세로 간주하더라도 취약한 시장기반 하에서 강력히 추진된 수치상 목표 위주의 개혁노력이 충분한 의식의 변화없이 단기대응 위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함.
- 더욱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제표상의 재편성은 위기를 통해 제공된 전례없이 빠른 회복을 보인 거시경제 여건으로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정작 은행부문의 영업기반은 대출시장의 양극화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벤처열풍과 디지털화는 최근들어 또 다른 차별화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 성장주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취약성과 맞물려 금융부문의 위협을 높이고 있음.

### 금융개혁의 과제

- 제2차 금융개혁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외환위기이후 '국책 과제'로 추진됐던 금융개혁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발표한 2차 금융구조조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1차 개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와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 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에서 금융구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 더욱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채권시가평가제도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예금보호 대상 축소 등 국내변수와 더불어
- 대형은행들의 잇따른 합병·사업매각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금융계의 동향과 비교할 때 시장의 힘에 의한 변화는 불가피함.
- 그러나 시장의 힘에 의한 자발적인 합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음.
- 노조의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으나 아직까지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자발적인 합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실제로 외부로 드러나는 불건전여신규모는 금년 들어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잠재적인 부실여신의 규모는 여전히 큼.
- 더구나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출자전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

에 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위험은 더욱 높아졌음.

-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 상황논리에 밀리게 되면 2차 금융구조조정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뤄지게 될 수도 있음.
- 64조원을 투입한 1차 금융개혁이후 지체되고 있는 2차 금융개혁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 지속의 대전제인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해 정부는 태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 또 다른 개혁의 걸림돌은 지나친 상황논리와 정치논리에 얽매어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의 대표적인 예인데 결국 제일은행은 팔았지만 매각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루고 있음.
- 서울은행 문제는 해외매각·위탁경영·외국인전문경영인 영입 등의 정부정책이 모두 무산된 채 2년여째 표류하다가 도이체뱅크와 ‘포괄적 구조개선 자문계약\*’을 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 \* 포괄적인 구조개선 자문계약은 경영진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사업전반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무에 직접 관여하게 되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청구권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점에서 위탁경영과 다름.
- 이는 6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얻은 해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며 문제는 자문계약이 끝난 후 여전히 제일은행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임.
- 국내 금융기관을 국외에 헐값을 팔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며 정부가 말한 것

처럼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는 학습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임.

-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과 보호로 인해 시장규율에 대한 보상과 책임원칙이 확립되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계층이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는 상황.
- 장기적으로 각종 충격 하에서 경제의 조정비용과 취약성을 줄여나가려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우리의 금융과 외환시장은 그 기능과 규모 면에서 크게 확충되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의 시사점은 시장원리의 정착이며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중간평가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2차 금융개혁의 초점은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할 필요.
-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없이도 시장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겠으나
- 현재의 시장 참가자의 행위나 공적자금을 둘러싼 갈등구조를 감안할 때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가져가더라도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필요는 자명한 사실임.
-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을 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의 추가적 투입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임.
-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어떻게 하면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국

민과 세계경제를 위해 다시 한번 한국경제를 지속적 성장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점임.

-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됨에 따라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있어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임.
- 따라서 금융시장의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진 시장만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장으로만 거래가 집중되면서 치열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임.
- 만일 앞으로도 쓸데없는 규제가 계속되어 증권분야를 포함한 금융중개비용이 높다면 외국의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외국의 대체시장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금융시장의 공동화가 진행될 것임.
- 현재의 정보화 및 세계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금융산업은 첨단 정보기술을 빨리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적인 전략적 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 3.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과제

- 기업지배구조는 현 정부의 기업정책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분야로 평가됨.
-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경영투명성, 지배권 시장, 이사회 기능과 구조, 지배주주의 책임과 주주의 권리 등으로 나누어 폭넓게 접근하였으며, 각 부문의 제도개선을 위해 상법, 외감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이미 손질하였음.
- 1998~99년의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제도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위기라는 특이 상황 속에서 국제적 압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집권 초기 개

혁신력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음.

### 향후 정책과제

- 규칙의 일관되고 엄정한 집행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관행이나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는 법률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달리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 강하기 때문에 공식적 제도내용의 변화가 실질적인 관행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상례임.
  - 지금까지의 제도개혁은 법률제도 내용의 손질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바뀐 제도의 일관되고 반복된 집행을 통해 선진적 기업지배구조 관행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함.
- 기업지배구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책임과 효율을 조화롭게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에 있으며 ‘주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명분 때문에 단독주주권 및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적합성과 부작용 등의 기대효과에 비추어 볼 때 時機尙早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기업의 경영목표는 주주가치와 기업성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소유경영자 중심의 경영관행에서 전체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경영목표의 수정은 불가피한 추세임. 이를 반영하듯이 기업들도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IR 및 주가관리 정책을 펼치는 한편, 사외이사 과반수와 감사

위원회의 도입을 정부의 당초 계획에 앞서 도입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기업관, 소유구조, 기업발전단계, 이해관계자 분포(예: 노사관계) 등의 한국적 특성과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감안할 때, 영미식의 철저하게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구조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성장과 주주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목표가 현실적인 대안인 것으로 보임.
- 정부-시장참여자-기업간에 역할분업의 적정 경계를 설정해야 함.
- 정부는 내부지배구조(이사회)의 세부사항까지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나머지는 시장압력에 따라 기업특성에 적합한 지배구조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어야 할 것임.
- 시장이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지금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확대와 투자자의 권리의식 제고에 힘입어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되는 등 시장의 경영규율기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지배구조의 문제를 모든 경제조직의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동시적인 개혁이 필요
- 기업경영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인 금융기관, 연기금, 비영리재단 등은 경영투명성을 위시하여 자체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으며, 이들 경제조직의 지배구조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임.



## 부 록

---

경제정책정보

---

## 주요경제통계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4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	<p>「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우 워크아웃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권별 손실부담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감안하여 금융권별 대책을 강구</li> <li>○ 투신·증권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속된 대우채권 지급비율(50~95%)을 철저히 보장</li> <li>- 투신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간의 손실부담원칙을 명확히 함</li> <li>- 대주주가 분명한 투신·증권사에 대하여는 대주주 증자 등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유도</li> <li>- 누적적자가 크고 대주주가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공공자금 등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 조기 추진</li> </ul> </li> <li>○ 은행에 대하여는 대우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여 건전성을 계속 유지</li> <li>○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플랜에서 원리금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지급 실시</li> <li>○ 저금리 유지 및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마련</li> </ul>
11/12	금융감독위원회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강화, 자료제출요구 등의 거부 등에 관한 조치 근거 신설, 일반감리대상회사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li> </ul>
11/26	금융감독원	<p>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li> <li>○ 외국인이 직접투자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외거래 허용</li> <li>○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초과 허용사유에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 포함</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11/30	정 부	<p>1999년도 제2차 IMF 정례회의 최종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시경제분야 주요 합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경제성장률을 8~9%로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1%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를 GDP의 6% 내외로 전망</li> <li>- 2000년에 대하여는 성장률을 5~6%,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전망</li> <li>- 저금리 정책, 신축적 환율정책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li> </ul> </li> <li>○ 금융구조조정분야 주요 합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4일 발표된 금융시장안정대책대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한 신규투자를 2000년 7월 1일부터 금지</li> <li>-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은 2년에 걸쳐 분할적립(1999년 50%, 2000년 50%)</li> <li>- 기타 투신·보험사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등</li> </ul> </li> </ul> <p>○ 동 회의의 결과는 12월 중순에 IMF 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p>
12/3	재정경제부	<p>특별소비세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그 동안의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이미 대중화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까지 과세함에 따라 과중한 중산층 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동 법을 개정</li> <li>○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조정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고, VTR, TV, 세탁기, 오디오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기호음료, 화장품 등 식음료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li> <li>- 슬롯머신, 사행성오락기구,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 등 오락 및 고가 레저용품은 현행의 30% 과세율을 유지</li> <li>- 보석류 및 고급사진기 시계 등 고가용품(세율 30%)과 승용차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현행의 과세체계를 유지</li> <li>- 한편 경마장, 골프장, 유흥장소 등 과세장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행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나 스키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2/23	예금보험공사	<p>제일은행 매각관련 本契約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계 투자펀드인 Newbridge Capital이 제일은행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KFB Holding Company와 제일은행의 매각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을 합의하고 本契約을 체결</li> <li>○ 本契約 체결은 1998.12.31일 MOU 체결로부터 시작된 제일은행 매각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ul>
12/24	금융감독위원회	<p>제일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일은행은 동행의 매수예정자인 Newbridge Capital의 투자금액 5,000억원에 대한 지분율이 50.99%가 되는 수준으로 자본금을 조정하고자 자본금 감소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은행의 자본금 감소(44,807억원→9,806억원)를 인가</li> </ul>
12/24	금융감독위원회	<p>비은행금융기관(금고, 종금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및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도 CAMEL방식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경영건전성 개선지도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li> <li>○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금융기관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건전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li> </ul>
12/30	산업자원부	<p>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00.1.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통계작성을 위해 신규업체에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li> </ul> </li> <li>○ 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li> <li>○ 원산지표시 등 정비(2000.7.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표시가 유통과정에서 손상·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ul> </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2	정부	<p>「類似受信行為의 規制에 관한 法律」 공포·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선량한 거래자로 하여금 유사금융기관이 적법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li> <li>○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신행위를 하는 행위, 이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li> </ul>
1/12	재정경제부	<p>소득공제대상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대상 범위를 벤처기업에 투자한 同社 종업원, 출자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도록 확대</li> <li>-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 同금액의 30%를 당해 과세연도 또는 향후 2개 과세연도중 택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데 특수관계인은 그 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음</li> <li>- 2000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공제 받도록 변경</li> </ul>
1/14	금융감독위원회	<p>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 <math>\times 1/2 \times</math> 대주주지분율</li> <li>- 부실책임을 묻기가 곤란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경제적 책임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 경감 가능</li> <li>○ 부담방법 :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동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또는 전환사채의 매입,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증권금융채권의 매입 등</li> <li>○ 부담절차 : 인허가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되 그렇지않은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 가능</li> </ul>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21	금융감독위원회	나라종합금융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 발표 ○최근 유동성 악화로 예금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나라종합금융(주)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 1. 22. 부터 2000. 4. 21. (3개월간)까지 영업의 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
1/21	정 부	「증권거래법」 개정·시행 ○종금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에서 20배로 확대
1/28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시행 ○2000년 1.21일 공포된 개정은행법은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과 관련된 일부사항을 은행감독규정에 반영 -감사위원회 위원중 상근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현행 감사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설정 -상근감사위원의 타 직무겸직을 금지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년 동 기 대 비 (%)				
1995년	8.9	11.3	10,823	9.6	0.8	11.9	18.1	8.0
1996년	6.8	6.8	11,380	7.1	8.2	7.3	9.1	6.1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2.0	4.7	6,742	-4.5	6.8	-16.8	-32.3	-7.9
1999년	8.9	12.2	8,581	10.8	0.1	2.2	29.1	-9.3
1997년 4/4	3.6	4.9	-	-0.1	-0.4	-7.2	-25.9	4.5
1998년 1/4	6.5	20.0	-	-3.0	10.9	-9.9	-22.8	0.1
2/4	-2.1	4.3	-	-5.7	7.2	-17.4	-39.9	-2.6
3/4	-4.3	0.8	-	-5.4	7.7	-19.4	-35.9	-10.5
4/4	-6.5	-4.3	-	-4.1	2.8	-19.4	-29.7	-15.0
1999년 1/4	0.1	-4.0	-	6.5	-2.5	-7.4	0.1	-11.8
2/4	7.8	8.7	-	10.2	-2.5	3.7	30.4	-7.1
3/4	12.4	20.7	-	13.0	2.5	4.8	41.9	-9.5
4/4	14.4	24.9	-	13.3	2.1	6.7	51.5	-9.3

무역 · 국제수지								
연 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 환 보 유 액 <sup>1)</sup> (기말)	대미 환 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3년	822.4	7.3	838.0	2.5	23.2	9.9	183.0	808.1
1994년	960.1	16.8	1,023.5	22.1	-28.6	-38.7	224.1	788.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239.9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6	-230.0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5.6	485.1	1,207.8
1999년	1,436.8	8.6	1,197.5	28.4	287.2	250.0	740.5	1,145.4
1999년 5월	114.3	1.0	94.5	24.6	26.2	22.9	587.3	1,186.2
6월	128.2	11.4	102.0	31.7	27.4	24.1	604.3	1,155.9
7월	117.5	17.2	97.7	37.9	27.4	27.9	639.8	1,206.9
8월	113.7	17.1	98.5	38.5	16.1	17.5	647.8	1,184.6
9월	119.7	11.3	101.3	39.6	25.9	22.1	654.8	1,218.7
10월	134.5	26.5	113.6	48.5	26.4	21.1	662.1	1,200.5
11월	142.0	21.7	117.3	40.9	22.2	22.1	696.8	1,157.5
12월	149.6	20.4	125.8	45.4	21.9	14.0	740.5	1,145.4
2000년 1월	121.8	31.5	125.8	45.9	6.3	3.2	767.9	1,122.1
2월	127.9	37.0	120.2	57.4	7.2	7.9	797.3	1,131.8
3월	146.0	25.3	142.2	52.8	-	-	836.5	1,106.0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실업·이자율

연 월	물가 <sup>2)</sup>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sup>3)</sup>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 <sub>2</sub>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평균	기간평균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3.2(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4	652.9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5.1	408.6
1999년	-2.1	0.8	6.3	14.7	27.9	7.6	8.9	806.8
1999년7월	-3.0	0.3	6.2	14.2	24.2	6.1	8.6	971.4
8월	-1.6	0.9	5.7	17.2	25.0	7.8	9.9	933.1
9월	-1.1	0.8	4.8	25.9	26.6	10.0	10.4	926.9
10월	-0.2	1.2	4.6	9.8	24.0	9.9	9.1	828.6
11월	0.6	1.4	4.4	14.1	26.7	11.5	9.5	950.1
12월	0.9	1.4	4.8	22.8	28.5	12.2	9.9	984.5
2000년1월	2.0	1.6	5.3	21.6	27.6	12.2	10.3	952.5
2월	2.1	1.4	5.3	-	28.2	13.5	10.0	902.7
3월	2.4	1.6	-	-	27.2	13.8	10.0	878.4

주:2) (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가동 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sup>4)</sup>	국내기계 수주 <sup>5)</sup>	기계류 수입 <sup>6)</sup>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8.7	80.8	7.0	5.8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4.7	79.2	3.2	-1.6	3.3	-22.8	5.4	-0.4	-26.2	2.6
1998년	-6.5	68.0	-12.7	-21.0	-30.5	-52.9	-42.6	-55.0	-68.2	-50.3
1999년	24.2	76.6	13.0	21.1	22.6	33.5	0.8	42.3	179.8	43.2
1999년6월	32.2	79.4	15.0	20.5	51.5	47.0	-6.2	16.8	272.3	5.6
7월	35.1	80.3	19.4	24.7	29.5	43.2	0.1	49.0	243.7	39.6
8월	31.7	79.2	19.1	32.9	29.1	44.6	1.0	109.3	288.4	114.3
9월	20.3	79.4	14.6	21.2	10.6	48.3	36.5	81.6	204.5	111.5
10월	33.5	78.5	16.2	28.8	24.2	58.4	33.9	277.7	353.2	358.8
11월	29.0	80.3	16.2	25.4	3.7	54.0	17.5	120.7	315.8	119.2
12월	24.6	80.6	14.9	20.1	14.2	73.8	8.9	172.3	215.5	200.9
2000년1월	28.0	80.5	16.6	21.0	17.8	56.7	105.3	89.4	403.9	62.1
2월	25.4	78.9	13.3	19.4	19.8	81.0	74.5	67.1	201.1	59.8

주: 4) 내수용 5) 내수용,선박제외 6) 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권1쇄 인쇄/2000년 4월 25일

1권1쇄 발행/2000년 4월 27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이수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